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이 28일 종로구 정부 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un

스포츠 4대약 척결, 관용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4대약 견여내기에 관용은 없다”며 체육계 비리 근절 및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체부는 28일 경찰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한 체육계 비리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월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5월 경찰청과 함께 합동수사반을 꾸렸던 문체부는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에 그동안 총 269건이 접수됐고, 이중 118건이 종결됐다. 검찰 송치가 2건, 검찰 수사 의뢰가 2건,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25건이고, 나머지 89건은 단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신고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태권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리유형별로는 경기단체조직의 사유화와 관련된 신고가 113건으로 최다였다.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형사처벌·징계 등 비리 관련자를 스포츠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작업과 함께 향후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 시스템 개혁을 해나가겠다”며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

문체부, 체육계 비리 중간조사 결과 발표 관련자 영구 퇴출 등 무관용 원칙 재천명

비리 전담수사기구 상시화 등을 통해 50여년간 쌓여온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에 발맞춰 기존 합동수사반을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되면 폐지하고, 그 대신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운영한다. 동석한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별로 스포츠비리부를 다들 전담반을 신설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스포츠비리전담반 운영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신한은행의 외국인선수 카리마 크리스마스가 28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KB스타즈와의 원정경기 도중 득점에 성공한 뒤 표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이날 26점·11리바운드로 신한은행의 57-49 승리를 이끌었다. 사진제공 | WKBL

본 모습 찾은 신한은행 4R 우리은행 대항마로

크리스마스 26점 활약...KB스타즈 꺾고 2연승



신한은행이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에서 시즌 초반의 부진을 씻고 강팀의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26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선두 우리은행과의 라이벌전에서 61-55로 이겼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의 개막 17연승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올 시즌 4번째 맞대결 만에 첫 번째 승리를 거머쥐며 정규리그 4라운드 이후 대반격을 예고했다.

신한은행에 이날 승리가 더욱 값졌던 것은 경기력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통해 점수를 쌓아갔다. 스피드가 뛰어난 우리은행보다 속공 득점도 많았다. 공격력이 좋은 우리은행을 55점으로 묶은 수비 또한 효과적이었다. 특히 외국인선수 카리마 크리스마스가 공수에 걸쳐 기대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신한은행은 개막 이전부터 우리은행의 대항마로 꼽혔지만,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 조직력에서 아쉬움을 샀다. 정인교 감독으로 사령탑이 바뀐 가운데, 비 시즌 동안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선수가 많아 제대로 손발을 맞춰보지 못했다. 게다가 엮고지 이전으로 훈련할 체육관이 마땅치 않아 떠돌이 생활까지 했다. 이 때문에 정 감독은 신한은행이 제대로 된 전력을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3라운드까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고전했던 신한은행은 4라운드 첫 경기에서 우리은행을 잡아 상승세의 기세를 마련했다. 28일 3위 KB스타즈와의 청주 원정경기에서도 57-49로 이겨 12승5패로 우리은행(16승1패)을 4경기차로 압박했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의 대항마다운 저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트위터 @glyong11

라틀리프 “어머니는 내 최고의 팬이다”

바스켓볼 피플

모비스서 3시즌째...올 시즌도 만점 활약
어려운 형편에도 '조던 농구화' 사준 모정
한국서 번 돈으로 지난 여름 집 장만 효과
여자친구 임신...부양가족 늘어 더 책임감

남자프로농구 선두 모비스의 외국인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25)는 올 시즌 30경기에 출전해 평균 18.2점·9.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팀의 기동인 그는 가족의 기동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3년째 뛰면서 프로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자신의 모친을 비롯해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청년 가장'이다.

●가난해도 농구선수 아들만은 행진 어머니

라틀리프는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의 모친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업에 뛰어들었다. 밤낮으로 하드웨어를 하면서도 자식들을 돌봤다. 라틀리프는 중학교 때부터 농구선수생활을 시작했다. 하루 끼니도 힘겹게 해결하는 가정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돈을 아껴놓았다가 1년에 한두 차례씩 둘째 아들을 위해 고급 농구화를 선물했다. 라틀리프는 “아들이 농구를 하는데 현 농구화를 신고 뛰는 모습이 어머니에게는 아픔이었던 것 같다. 선수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어머니가 아껴둔 돈으로 '조던 농구화'를 사주고는 했다. 집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라틀리프는 2011년 미주리대학교를 졸업한 뒤 2011 KBL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해 전체 6순위로 모비스에 입단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모비스에 3시즌째 몸담고 있다. 그는 모비스에서 받는 월급 중 자신의 생활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으로 송금한다. 모친은 아들이 벌어들인 돈을 알뜰하게 모았고, 지난 여름 고향 버지니아에 새 집을 장만했다. 라틀리프는 “집을 산 뒤 어머니의 자랑거리가 더 늘었다. 동네를 지나다가 지인이라도 만나면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프로농구선수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사줬다'며 끊임없이 자랑한다. 내가 그만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내 최고의 팬이다”며 웃었다.

●자식사랑도 모전자전!

라틀리프는 내년 3월이면 아빠가 된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다. 그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한국에 더 머물며 출산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미 모친과 큰 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에게 부양가족이 더 늘어난 것이다. 라틀리프는 “여자친구에게 '내가 먹여 살릴 테니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자'고 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영향 때문인지 3월이면 태어날 딸을 곁에 두고 아빠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여자친구도 부탁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여자친구에게 딸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 책임감을 느낀다. 더 열심히 운동하면서 프로생활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리카르도 라틀리프는 모비스가 2014~2015시즌 선두를 질주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3시즌 연속 KBL에서 뛰고 있는 그는 꾸준한 성장세 속에 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선수로 자리 잡았다. 사진제공 | KBL

안현수, 유로스포트 선정 '올해의 러시아선수' 영예
러시아로 귀화해 올해 초 2018소치동계올림픽 3관왕에 오른 남자쇼트트랙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이 유로스포트가 28일(한국시간) 공개한 '올해의 러시아선수'로 선정됐다. 유로스포트는 “빅토르 안의 활약으로 쇼트트랙을 잘 모르던 러시아가 관심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대표로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3관왕을 차지했던 빅토르 안은 부상과 팀 해체 등 홍역을 치른 뒤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소치동계올림픽에서 500m·1000m·50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2357

대표이사 서영숙

수술 없이 강한 남자!!

20대의 막강 파워! '뉴 맨'!

특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정기동 강화용 링

특허청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개폐장치
본드부착 방식이 아닌
보석물결링(사이드)로 한양구
전면자수정
자석 (약700가우스)
두께3mm의 얇은 본체에
특수기술로 진동 내장
본체 (순은)

중국지사 T. 0433-286-5031
지사장 권대근

일본지사 T. 03-6233-8994
지사장 호시 고우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월의 흐름을 가장 먼저 느끼는 남성의 심벌
힘도 약하고 중간에 시들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특허청 최초 발명특허!

발명의 명칭 "남성 성 기능 강화용 링"
세계최초 유일의 3개 부분 발명특허
2.5mm마다 차별화된 38가지 사이즈 '뉴 맨'

뉴맨홈페이지에서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즉시 나타나는 막강 파워!

1. 힘이 약하다 ➡ 20대의 막강 파워!
2. 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 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4. 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 뉴 맨 출시 10년! 60만고객 돌파 !!

· 안전하고 과학적인 발명특허 제품 !!

NAVER 에서 뉴 맨 을 검색하세요
dM 에서 뉴 맨 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주소창에서
뉴 맨 .kr 을 입력하세요.

세계인의 자존심 '뉴 맨'

출시 10년만에 60만고객돌파! 일본과 중국 지사 설립
동남아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동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점점 약해져가는 당신,
강력했던 위성과 자존심마저 약해져 갑니다.
아스라해진 그때의 힘, 절정의 시간들,
뉴 맨이 되돌려 드립니다."
이동준의 '뉴 맨'!
"최고의 남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평상시 사이즈	뉴 맨 호수
6.5018	주문 제작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018	주문 제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 · 환불

T.1577-5579, 010-7636-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엔제이스포츠
통신판매 허가 번호 0701호